

## 근대전환기 서구 기독교윤리 교육을 위한 주일학교의 아동중심교육학 도입\*

윤정란 (숭실대학교 조교수)

I. 들어가는 말

II. 서구 기독교윤리 교육을 위한 주일학교의 도입과 제도적 발전

III. 서구 기독교윤리 교육을 위한 주일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아동중심교육학 교재

IV. 주일학교 아동중심교육학 교재로 본 서구 기독교윤리의 교육방식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0.47.03>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2723)

---

• ABSTRACT •

---

Introduction of child-centered Educational Research at Christian  
Sunday School for the Western education of Christian ethics in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Prof., Yoon, Jungran (Soongsi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introduction of Christian Sunday School's child-centered education for Christian ethics education in the Western era. This article demonstrates who, what channel, and what contents were mainly included in the teaching materials for Sunday School teacher training.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paper deals with the first translation of W.G. Cram, published in 1909 to cultivate Sunday School teachers in 1909, regarding *Legion of Honor, Teacher Training Lessons* (교사랑성 주일학당교과서). Also, this research studies the translations of Nam Gung-hyeok, published in 1922, *Primary Method in the Church School* (최신 유년주일학교교수법), and Han Seok-won's interpretation, *The Church School* (최근 주일학교론), and Hong Byeong-sun's *Sunday School Teaching Method of Early Modern Period* (근세 주일학교교수법). This research clarifies what the content of child-centered educational research emphasized in these books. Thus, this article introduces child-centered education in the field of Christian ethics during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Key words:** Metamorphosis, Christian Ethics, Sunday School, Chosun Sunday School Federation, Cram, Namsung Hyeok, Hong Byeong-seon, Han Seok-won

---

## I. 들어가는 말

19세기말 이후 서구 제국주의의 한반도 유입과 함께 서구의 기독교도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초기에는 반서양·반기독교적인 분위기로 인해 서구 기독교의 확산은 지체되었다. 그러나 1894년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조선인들은 서양의 발전된 근대 문명의 정신적 토대가 기독교라는 것을 자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 오백년간 정신적 기반이었던 유교적 질서는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서구의 근대 사상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sup>1)</sup> 즉 문화의 메타모포시스(Metamorphosis) 현상이 일어났다.<sup>2)</sup>

조선 양반 계급이 채택한 유교의 핵심은 “이(理)와 기(氣), 태극과 음양, 도(道)와 기(器), 성(性)과 정(情), 천리(天理)와 인욕(人慾), 도심(道心)과 인심(人心), 사단(四端)과 칠정(七情) 등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설명하는 형이상학적 논리 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바탕으로 한 삶의 통합적 원리”였다.<sup>3)</sup>

유교의 기본적인 도덕 사상은 삼강오륜(三綱五倫)이었다. 삼강오륜은 조선인들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덕적 강령이었다. 즉 유교의 도덕적 원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말 이후 한반도에 도착한 외국 선교사들은 새로운 서구의 기독교윤리를 주장하였다. 그것을 성경의 십계명으로 설명하였다. 성경의 십계명은 신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할 윤리였

1) 박정신, 『한국기독교 읽기』(서울: 다락방, 2004), 114-117.

2) 문화의 메타모포시스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대해서는 Jürgen Schlaeger, ed., *Metamorphosis Structures of Cultural Transformations*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2004) 참조.

3) 구장률, 『근대초기 잡지와 분과학문의 형성』(서울: 케포이북스, 2012), 7.

다.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그리고 넷째 계명이었으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섯째 계명과 일곱째 계명이었다. 내한선교사들은 성경의 십계명에 음주, 놀음, 그리고 아편 등을 금지하는 계명도 추가하였다. 다섯째 계명인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유교의 도덕 사상에서 강조한 ‘효’와 같았으나 조상의 영혼숭배 의 식인 제사를 금지시켰다. 이외에 직업윤리 등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즉 교인 개개인은 “자신의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며 직업윤리를 강조하였다.<sup>4)</sup>

내한선교사들은 한국인들에게 기독교윤리를 개인과 사회의 규범으로 내면화 및 확산시키기 위해 근대 교육사업을 전개하였다. 교육사업은 일반교육과 종교교육으로 구분해서 시행하였다. 종교교육은 사경회와 주일학교 운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한국인들은 주일학교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구 근대교육학을 접할 수 있었고 학생들은 주일학교에서 서구의 근대 교육방식을 접할 수 있었다.<sup>5)</sup>

주일학교는 1905년을 기점으로 제도화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 운영되던 성경반이 점차 주일학교로 발전하였다. 1911년에는 조선주일학교 실행위원회가 조직되었고, 1922년에는 조선주일학교연합회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주일학교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대표적인 종교교육기관이자 서구 근대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다.

4) 백중구, “초기 개신교 선교부의 사회윤리,” 『교회사학』 1-1(2001), 118-121, 134-139, 144, 근대전환기 서구 기독교윤리의 수용과 변용에 대해서는 문시영 외, 『근대 사상의 수용과 변용』(서울: 선인, 2020), 오지석, 『서양 기독교윤리의 주체적 수용과 변용: 갈등과 비판을 넘어서』(서울: 푸른영토, 2018), 김명배, “1920년대 민족주의운동과 기독교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기독교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기독교사회윤리』 32(2019), 김권정, “근대전환기 윤치호의 기독교사회윤리사상,” 『기독교사회윤리』 22(2011), 김권정, “한국기독교초기 유교지식인의 기독교사회윤리연구: 월남 이상재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20(2010) 참조.

5) 이윤진, “1910년대 개신교 주일학교의 교육활동,” 『한국교육사학』 30-2(2008).

지금까지 근대전환기 주일학교와 관련해서는 여러 편의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sup>6)</sup> 이와 같은 연구성과들은 대부분 주일학교의 초기 역사, 주일학교의 교재, 조선주일학교연합회와 주일학교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 주일학교 교사 양성 등에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에 의해 주일학교와 관련된 많은 역사적 사실을 밝혀냈지만 주일학교가 제도화함에 따라 필요한 교사 양성을 위한 아동중심교육학 교재에 대해서는 분석이 없었다. 이윤진은 선교사들이 개설한 주일학교 교사반에서 이루어진 교사교육이 교육학, 아동심리학, 교수법 등과 같은 서구 근대교육학을 주로 가르쳤다는 사실을 추적하였고, 소흥회는 서울에 소재한 연동교회, 왕십리교회, 새문안교회, 정동제일교회 등에서 실시된 주일학교 교사 양성교육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 연구성과에서는 주일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아동중심교육학 교재에 대한 분석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아울러 근대전환기 근대교육학의 도입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성과에서도 주일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아동중심교육학 교재에 대해서는 검토 및 분석을 하지 못했다.<sup>7)</sup>

- 
- 6) 1950년대부터 한국 주일학교 역사에 대한 책들은 지속적으로 출간되었다. 대표적인 연구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엄요섭, 『한국기독교역사소고』(서울: 재단법인 대한기독교교회, 1959), 문동환, “한국의 교회교육사: 주일학교 운동 중심으로,” 대한기독교교육협회, 『한국기독교교육사』(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73), 안병준, “조선주일학교연합회연구: 1922년-1937년간의 주일학교운동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김폴린, 『한국기독교 교육의 역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윤춘병, 『한국감리교회 주일학교 사회』(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 교육국, 1992) 등을 들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안병창, “한국교회의 청소년부 교육과정 변천사: 5개 교단을 중심으로,”(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이윤진, 위의 논문, 이지혜, “전(全) 조선주일학교대회에 관한 연구,”(서울장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소흥회, “초기 한국주일학교(1888-1945년) 교과교재에 따른 교사교육방법 연구,”(충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등이 있다.
- 7) 서구 교육학 도입과정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성과로 김성학, “서구 교육학 도입과정 연구”(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를 들 수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주일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교재가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 도입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먼저 주일학교의 도입과 제도화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1909년에 주일학교 교사 양성을 위해 한국 최초로 출간된 크램(W.G. Cram)의 『교사랑성 주일학당교과서』, 1922년에 발간된 남궁혁의 『최신 유년주일학교교수법』, 한석원의 『최근 주일학교론』, 홍병선의 『근세 주일학교교수법』<sup>8)</sup>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책들에서 강조한 아동중심교육학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전술한 세 종류의 책은 서구 기독교윤리 교육을 위한 아동중심교육학의 도입과정을 밝히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근대문헌자료이다. 크램의 『교사랑성 주일학당교과서』는 주일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교재로서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최초의 아동중심교육학 교재이며, 남궁혁, 한석원, 그리고 홍병선 등의 번역서와 저서는 한국의 주일학교가 제도적으로 정착한 시기에 발간된 아동중심교육학 교재였다. 이후 한국인들이 발간한 주일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아동중심교육학 교재는 모두 이 책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한국의 주일학교의 역사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술한 네 종류 책의 검토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8) 하밀 저·크램 역, 『교사랑성 주일학당교과서』(발행처 불명, 1909), 명커스 저·남궁혁 역, 『최신유년주일학교교수법』(서울: 조선야소교서회, 1922), 아던 저·한석원 역, 『최근주일학교론』(서울: 조선야소교서회, 1922), 홍병선, 『근세주일학교교수법』(서울: 조선야소교서회, 1922).

## II. 서구 기독교윤리 교육을 위한 주일학교의 도입과 제도적 발전

근대전환기 서구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국에서는 주일학교 제도가 생겼다. 초기 사랑방에서 운영하던 성경반이 주일학교로 발전되었다.<sup>9)</sup>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튼 부인(Mary F. Scranton)은 1888년 1월 이화학당 학생 12명, 정동교회 여교인 3명, 북감리교 해외선교부 4명 등 총 19명을 모아 놓고 주말에 성경공부를 시작하였다. 같은 해 3월 내한선교사 아펜젤러(H.G.Appenzeller)는 배재학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주일학교를 운영하였다.<sup>10)</sup>

유년주일학교(Children's Sunday School)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주일학교를 처음 운영한 선교사는 노블 부인(Mattie Wilcox Noble)이었다. 1903년 5월 노블 부인은 평양 남산현 감리교회에서 어린이들을 모아 놓고 주일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두 달 후인 7월에 노블 부인은 200명의 어린이들을 가르쳤다. 주일학교는 일요일 8시에 시작하였다. 노블 부인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적어도 한 사람당 4세에서 16세 사이의 어린이 5명을 모집해 올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아직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은 수많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7월에 200명의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 당시 교사는 20여명에 이르렀다. 교재는 미국의 「만국통일공과」를 등사하여 사용하였다. 1910년에는 미국의 톰슨(W.H.Tompson)의 기부금으로 주일학교 교사를 남산현 교회에 건축하였다. 1911년 10월에는 영아부(嬰兒部)도 처음으로 조직하였다.<sup>11)</sup>

9) 문동환, “한국의 교회교육사: 주일학교 운동 중심으로,” 37.

10) 조선혜, “노블부인의 선교생활 연구,”(감리교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96-97.

1905년 이전까지 주일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선크리스도회보』에 “예배일공과”를 수록하였다. 『조선크리스도회보』는 1897년 2월부터 아펜젤러에 의해 발간되었다. “예배일공과”는 교육과정으로서 성경구절과 주석, 학습과정으로서 묻는 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sup>12)</sup>

1905년 ‘재한복음주의 통합선교공의회(Gen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이하 통합선교공의회)’<sup>13)</sup> 산하에 주일학교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주일학교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주일학교 위원회는 『주일학교공부』를 발행하였다. 이 서적은 성경을 쉽게 설명한 것이다. 1906년에는 미국 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공과위원회에서 발간한 「통일공과」를 한 해 늦게 한국에서 발간하여 주일학교에 배부하였다.<sup>14)</sup> 1911년에는 계간으로 「만국주일공과」와 월간으로 「성경강론월보」 등을 발행하였다. 이 두 서적의 내용은 교육과정으로 하나님, 예수, 성령, 교회, 성경, 구원, 학습과정으로는 제목, 주제문, 성경요절, 성경공부내용, 그리고 질문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sup>15)</sup>

1907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이하 독노회)가 조직되자 그 산하에 ‘주일학당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한국인 장로 36명, 4선교부 33명, 찬성회원 9명 등 78명의 회원이 모여 장로회공의회가 개최되었고, 이 때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창립을 선포하였다. 독노회 창립과 함께 장로회는 주일학교를 제도화시키고 주일학교 교육에 매진하

11) 배덕영, 『주일학교조직과 관리』(서울: 기독교조선감리회 총리원 교육국, 1935), 13,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자료총서 제17집: The Journals of Mattie Wilcox Noble』(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3), 111.

12) ‘레비·일공과’, 『조선크리스도회보』 1897년 2월 10일자.

13) ‘재한복음주의 선교통합공의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금현, “재한복음주의선교통합공의회,” 『성결교회와 신학』 6(2001), 161-190 참조.

14) 문동환, “한국의 교회교육사: 주일학교 운동 중심으로,” 39,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연동주일학교100년사: 1907-2007』(서울: 연동교회 역사위원회, 2008), 76.

15) 안병창, “한국교회의 청소년부 교육과정 변천사: 5개교단을 중심으로,” 53.

였다.<sup>16)</sup>

1908년에는 미국 세계주일학교연합회(The World's Sunday School Association)의 하밀(H.M. Hamill)이 내한하여 한국 주일학교연합회의 조직을 요구했다. 하밀은 일리노이 주일학교연합회(The Illinois State Sunday School Association)의 대표였다. 그는 세계주일학교연합회의 실행위원장인 베일리(G.W. Bailey)의 서한을 가지고 왔다. 베일리는 서한을 통해 만일 한국에서 주일학교연합회가 조직된다면 그 착수 비용으로 1천 달러를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하여 1908년 3월 19일 여러 교파의 선교사들은 세계주일학교연합회 한국지부를 결성하였다. 회장은 윤치호였으며, 실행위원장은 그래함 리(Graham Lee)이었다.<sup>17)</sup> 윤치호는 1907년 5월 18일에서 23일까지 로마에서 개최된 제5회 세계주일학교대회에 개인자격으로 참석하여 연설을 하였고, 실행부 위원으로 피선되었다.<sup>18)</sup> 그래함 리는 1892년 9월 내한한 이후 평양에서 선교사 주택(Well, Moffett, Swallen, Baird 선교사), 교회(New Woman's Chapel, 장대현교회), 숭실학당, 라드병원(Carolina A. Ladd Hospital) 등을 건축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외에 안나 데이비스 기념공작소(Anna Davis Memorial Shop)와 평양신학교도 그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sup>19)</sup>

하밀의 내한으로 세계주일학교연합회 한국지부가 조직되자 서울 연동교회를 비롯해서 평양 장대현교회, 남산현교회, 선천 북교회, 전주 서문교회 등에서 소아회(小兒會)가 만들어졌다.<sup>20)</sup>

소아회라고 부르게 된 것은 서울 연동교회의 김종상 집사 때문이었다.

16) 김양선, 『한국기독교사연구』(서울: 기독교문사, 1971), 101-102, 위의 논문, 44.

17) 백낙준, 『백낙준 전집 I: 한국개신교사』(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424.

18) 엄요섭, 『한국기독교육사 소고』, 10.

19) 정창원, “한국미션건축에 있어서 개신교 개척선교사의 활동과 영향에 관한 연구: 그래함 리(Graham Lee)의 건축활동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13-2(2004), 59.

20) 김양선, 『한국기독교사연구』, 136.

그는 연동교회의 초대 담임목사였던 게일(J.S.Gale) 선교사에게 감리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장로교회에서도 시작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게일은 김종상 집사에게 유년주일학교 조직의 책임을 맡겼다. 김종상과 게일은 감리회에서 이미 유년주일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장로교회에서는 소아회로 하자고 결정하였다. 김종상은 1908년 창간된 『예수회 회보』의 주필이기도 했다.<sup>21)</sup>

당시 연동교회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주일학교가 없었다. 장년주일학교만 운영되었다. 김종상에 따르면 그 당시 장년주일학교에서는 총회에서 제작한 ‘월보’로 공부를 했으며, 어린이들은 한쪽 구석에서 ‘월보’를 보며 교사의 강의를 경청했다고 한다. 또한 연동교회의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했으며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어린이들이 교회를 더럽히고 뛰어다니면서 시끄럽게 떠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 시기만 해도 여전히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연동교회의 양반 기독교인들은 양반의 자녀들과 상민의 자녀들을 함께 공부시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상민 자녀들을 가르쳐도 어디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크게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sup>22)</sup> 이와 같은 분위기의 연동교회에 소아회가 만들어진 것은 1908년 하밀의 방한으로 세계주일학교연합회 한국지부의 결성과 장로회의 독노회 조직과 함께 만들어진 ‘주일학당위원회’등에 의한 것이었다.

장로회에서는 하밀 방한을 계기로 세계주일학교연합회 한국지부의 조직과 장로회 노회 산하의 ‘주일학당위원회’ 설립 등으로 유년주일학교운동에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장로교 개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

21)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연동주일학교100년사: 1907-2007』, 72, 76.

22) 위의 책, 73-74.

인 소아회가 조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동교회는 1908년 연동교회를 크게 건축하면서 특별한 사업으로 소아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sup>23)</sup> 1909년에는 서울 정동교회에서 선교사 존스 부인(Mrs. C.H.Jones)이 처음 유년주일학교를 설립하였다. 영아부는 노블부인이 서울로 이주한 후인 1914년부터 시작되었다.<sup>24)</sup>

1910년 일제강점 이후 주일학교 제도는 더욱 발전하였다. 1911년 4월 세계주일학교연합회(The World's Sunday School Association)의 특별위원인 브라운의 내한(F.L.Brown)을 계기로 '주일학교실행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브라운이 내한했을 때 감리교와 장로교에서 선발된 주일학교 교사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블부인은 어린이 주일학교 시범을 보였다. 브라운은 남산현교회를 방문하였고, 그는 노블부인이 운영하는 유년주일학교가 지금까지 동양을 시찰하면서 참석했던 어떤 주일학교보다도 최고의 주일학교였다고 말함으로써 노블부인을 놀라게 하였다.<sup>25)</sup>

이를 계기로 1912년 2월 1일에서 2일 동안 '주일학교실행위원회'의 첫 모임이 이루어졌다. 이 위원회는 개신교복음주의연합선교공의회(Fed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이하 연합선교공의회)에서 관할하였다. 연합선교공의회는 1911년 7차 통합선교회 모임에서 재조직된 것이었다. '주일학교실행위원회'는 내한선교사와 한국기독교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었다. '주일학교실행위원회'가 조직된 이후 세계주일학교연합회에서는 매년 2천불을 원조하였다. 지원금으로 각종 주일학교 교재를 출판하였다.<sup>26)</sup>

23) 위의 책, 74.

24) 배덕영, 『주일학교의 조직과 원리』, 14.

25)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자료총서 제17집: The Journals of Mattie Wilcox Noble, 1892-1934』(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3), 230-231; 조선훈, "노블부인의 선교 생활 연구," 101.

26) 김양선, 『한국기독교사연구』, 136, 김폴린, 『한국기독교 교육의 역사』, 188.

같은 해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창립되었고 그 산하에 주일학교부를 상비부의 하나로 설치하였다. 총회는 주일학교의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주일학교에서 사용할 교재도 준비하였다.<sup>27)</sup>

1913년 봄에 세계주일학교연합회의 실행 총무인 하인즈(H.J.Heinz)와 브라운이 '4번째 위원단'으로 극동을 방문했다. 이 때 그들은 한국도 방문해서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된 세계주일학교협회 대회에 대해 보고해주었고, 한국의 주일학교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5개의 권고안을 만들어 주었다.<sup>28)</sup> 그리고 위원단을 환영하기 위해 4월 19일에 경복궁에서 언더우드(H. G. Underwood)의 사회로 대규모 주일학교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1만4천7백명이 참석하였다.<sup>29)</sup>

1915년 주일학교실행위원회는 주일학교 규칙을 제정 및 발표하였다. 주일학교 직제를 교장, 학감, 서기, 회계, 반사 등으로, 학생분반을 소아반 1-13세, 유년반 14-20세 등으로 통일시켰다. 이후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주일학교는 더욱 발전하여 1921년 주일학교 수는 3,899개에 달했고, 학생은 223,732명에 이르렀다. 같은 해 서울 승동교회와 YMCA 대강당에서 제1회 전 조선주일학교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각 주일학교 대표자 5인씩 총 1천 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대회의 강사는 세계주일학교연합회 총무 톰슨(J.V. Thompson)이었다. 그는 서울에서 개최된 장감연합회 주일학교 강습회를 비롯해서 전국 12개 도시를 방문하여 주일학교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계기로 1만 명의 어린이들이 주일학교에 등록하였다.<sup>30)</sup>

27) 안병창, “한국교회의 청소년부 교육과정변천사: 5개 교단을 중심으로,” 44-45.

28) 해리 로즈 지음·최재건 옮김, 『미국 복장로교 한국선교회사』(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9), 429.

29) 위의 책, 429.

1922년 11월 한국인들에 의해 ‘조선주일학교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조직되었다. 연합회의 총대는 총 10개 단체의 대표 27명이었다. 조선예수교 장로회 8명, 기독교조선감리회 8명, 북장로회선교회 2명, 남장로회선교회 1명, 가나다장로회선교회 1명, 호주장로회선교회 1명, 미감리회선교회 2명, 남감리회선교회 2명, 조선주일학교연합회 1명, 조선야소교서회 1명 등이었다. 임원은 회장, 부회장,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총무, 협동총무 등으로 구성되었고, 각부 위원회로 실행부위원회, 교육부위원회, 편집부위원회, 재정부위원회, 검열위원회, 통계위원회 등이 설치되었다. 한국인은 총 27명이 임원으로 있었고, 내한선교사는 총 5명이 활동하였다. 선교사들이 담당하는 것은 주로 회계와 총무였다. 1925년부터는 한석원과 정인과가 협동총무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sup>31)</sup>

장로교 총회에서는 1926년 주일학교부를 종교교육부로 이름을 바꾸고 기독교교육의 여러 분야를 개발함과 동시에 주일학교 공과를 발행하였으며, 성경통신교육을 시작하였다. 장로교에서는 이와 같이 주일학교운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연합회는 장로교 중심으로 발전을 했다. 그러자 감리교에서는 1928년 제7회 총회에 “감리교 종교교육협회”를 조직하여 주일학교운동에 박차를 가하였다.<sup>32)</sup>

### III. 서구 기독교윤리 교육을 위한 주일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아동중심교육학 교재

주일학교 운영에 관한 조직과 관리, 교육에 필요한 아동심리학 및 교수

30) 김양선, 『한국기독교사연구』, 137.

31) 조선주일학교연합회 참여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엄요섭, 『한국기독교육사소고』, 15-16 참조.

32) 안병창, “한국교회의 청소년부 교육과정변천사: 5개 교단을 중심으로,” 45, 55.

법 등의 아동중심교육학 교재로서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가장 처음 출간된 시기는 1909년이였다. 전술한 하밀(H.M.Hamill)이 미국에서 출판한 *Legion of Honor, Teacher Training Lessons*를 남감리교선교사 크램(W.G.Cram)이 편역해서 출간한 『교사랑성 주일학당교과서』였다.<sup>33)</sup> 1908년 세계주일학교연합회 한국지부가 결성된 이후 주일학교의 제도적 발전과 세계와의 연대가 시작되면서 주일학교 교사가 많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1909년 주일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사랑성 주일학당교과서』가 출간되었다.

이 책을 편역해서 출판한 인물은 선교사 크램(W.G.Cram)이었다. 크램은 한국교회사에서 기독교 교육을 개척한 인물이었다. 그는 1875년 미국 켄터키(Kentucky)주에서 출생했으며 1898년 에즈베리대학(Asbury University)을 졸업했다. 그 후 에즈베리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웨슬리안대학(Wesleyan University)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02년 남감리교회 켄터키연회에서 목수 안수를 받았다. 동년 남감리교 선교사로 내한한 이후 강원도 철원, 금화, 금성구역 감리사로 활동하였고 1905년에는 선교연회, 1921년에는 한국 연회 감독을 대리 주재하였다. 1922년 귀국한 이후 1926년부터 1940년까지 남감리교회 해외선교부 총무를 지냈다. 이외에 미국 성서번역위원, *The Christian News, the Christian Advocate* 등의 편집인으로 활동하였다. 1930년 남북감리교회가 조선감리교회로 연합할 때 선교본부 대표로 내한하였다. 1944년 은퇴하였으며, 1969년 10월 29일 미국 내쉬빌(Nashville)에서 세상을 떠났다.<sup>34)</sup>

33) 윤춘병, 『한국감리교회 주일학교사화』, 54-55, 이 책의 번역자로 W.G. Gram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크램의 오기이다. 그램이라는 인물은 내한한 적이 없다.

34) 윤춘병, 『한국감리교회 주일학교사화』(1992), 54-55, 김승태·박혜진 엮음, 『내한선교사총람』, 219.

원저자 하밀은 1847년 미국 앨라배마 론데스버러(Lowndesboro)에서 출생했으며 부친은 감리교 목사였다. 하밀은 앨라배마 대학(university of alabama)에 다녔고 그곳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조리(Missouri)에서 교사로 재직하다 1881년에 일리노이 잭슨빌의 공립학교(public schools in Jacksonville) 감독관이 되었다. 1885년에 그는 감리교 목사가 되었으며, 3년 후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 그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양성하는데 일생을 보냈다. 하밀은 일리노이 주일학교협회(the Illinois State Sunday School Association)를 조직하고 대표가 되었다. 그는 이와 관련된 많은 책들을 출판하였다. 즉 *Legion of Honor*, *Textbook of Sunday School Teachers*(이 책은 5개국어로 출판), *The Bible and its Books*, *The Sunday School Teacher*, *Sunday School Teacher Training and several others* 등이었다. 그는 1904년 *The Old South, a Monograph* 를 저술하였다. 그는 두 번 결혼했는데, 두 번째 아내인 아다(Ada)와 1907년에 6개월간 일본을 여행했고 1908년에 하밀은 한국을 방문했다. 1915년 그는 테네시(Tennessee)에서 세상을 떠났다.<sup>35)</sup> 하밀의 영어원본이 출간된 것은 1905년이였다. 이 때 출간된 것은 신약 12개의 장과 주일학교와 관련된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그 후 3년 뒤인 1908년 하밀은 개정판을 출간하였다. 이 때 출간된 영어원본은 1914년에 다시 출간하였다. 1914년 개정판은 1908년판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sup>36)</sup>

1908년 책의 목차는 파트 1과 파트 2로 구성되었다, 파트 1에서는 구약 12개의 장과 신약 13개의 장으로 구분해서 서술했다. 파트 2에서는 주일학교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는 학교, 교사, 스칼라

35) Documenting the American South(<https://docsouth.unc.edu/fpn/hamill/summary.html>/2020년 5월 2일).

36) H. M. Hamill, *Legion of Honor, Teacher Training Lessons* (Chicago: The W. B. Jacobs Company, 1914).

(Scholar) 등이었다. 학교에 대해서는 8장으로 구성해서 역사, 조직, 등급, 직원, 관리, 훈련, 프로그램, 현대 주일학교 방법, 교사에 대해서는 주일학교 목사, 교사, 레슨 스터디, 암송, 리뷰, 가르치는 것의 원리, 가르치는 방법, 교사 모임, 주일학교 목사의 업무 등을 포함하였고, 스칼라에서는 출석, 홈스터디, 기부, 정신 문화, 어린이의 공부 원리, 어린이 티칭, 어린이 훈련, 어린이의 생활 등을 설명하였다.

크렘은 하밀의 1908년 개정판을 편역 출간하였다. 편역본은 하밀의 영 어원본과는 완전히 다르게 편집하였다. 교사가 가르치는 파트와 교인들이 연습해야 하는 파트로 구분하였다. 교사가 가르치는 파트는 총 12장, 교인연습과목이 총 12장으로 전체 24장으로 구성하였다. 교사가 가르치는 파트 총 12장은 구약과 주일학교 원리와 방법을 각각 포함시켰다. 교인연습과목에는 신약과 주일학교 원리와 방법 등으로 편집하였다. 목차는 <표 1>과 같았다.

〈표 1〉 『교사양성 주일학당교과서』 목차

구약과 주일학교	신약과 주일학교
성경공부 제1장 구약전서 연습공부 제1장 주일학교장	성경공부 제1장 신약책과 기록한 사람 연습공부 제1장 근래 주일학교
성경공부 제2장 구약전서 디지 연습공부 제2장 목사	성경공부 제2장 기록한 땅 연습공부 제2장 주일학당 조직
성경공부 제3장 구약전서 사기: 창조할 때부터 애굽까지 연습공부 제3장 주일학교 처리	성경공부 제3장 기록한 성 연습공부 제3장 주일학교 직원
성경공부 제4장 구약전서 사기: 출애굽 부터 그리스도까지 연습공부 제4장 주일학교 목양	성경공부 제4장 성전 연습공부 제4장 주일학당 교사
성경공부 제5장 모세의 법전 연습공부 제5장 학생의 출석	성경공부 제5장 역사상 지방 연습공부 제5장 주일

구약과 주일학교	신약과 주일학교
성경공부 제6장 모세의 예식 연습공부 제6장 학생들이 집에서 하는 공부	성경공부 제6장 예수의 행적 연습공부 제6장 주일학당 교육법
성경공부 제7장 유대국 조례 연습공부 제7장 학생의 연보	성경공부 제7장 예수의 끝날 연습공부 제7장 주일학당 순서
성경공부 제8장 유대국 당파 연습공부 제8장 영혼을 신령으로 비양함	성경공부 제8장 예수의 도 연습공부 제8장 학과 공부
성경공부 제9장 구약전서 예언 연습공부 제9장 가르치는 이치	성경공부 제9장 큰 선생 연습공부 제9장 강술
성경공부 제10장 구약전서의 도 연습공부 제10장 가르치는 방법	성경공부 제10장 큰 사도 연습공부 제10장 복습
성경공부 제11장 성경역사 연습공부 제11장 근래 주일학당 방법	성경공부 제11장 상고 예수교당 연습공부 제11장 교사회
성경공부 제12장 성경에 요구 연습공부 제12장 어린이 공부	성경공부 제12장 예수교 증거 연습공부 제12장 초학부문

이 교재에서는 성경의 신구약개론, 성지지리, 주일학교의 조직과 관리를 비롯해서 아동중심교육학과 관련된 아동심리학과 교수법 등을 함께 다루었다. 이외에 아동부 예배 순서진행, 사무처리방법, 주일학당 순서 등도 함께 설명하였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처음 창설한 로버트 레익스(Robert Raikes)도 소개하였다. 이 책에 대해 윤춘병은 “주일학교 종합연구도서”라고 평가하였다.<sup>37)</sup>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1922년 한국인들에 의해 조선주일학교연합회가 조직되면서 아동중심교육학 교재가 여러 종류 출간되었다. 당시 조선주일학교연합회는 주일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시급성을 자각하고 있었다. 1922년 교사는 587명, 주일학교 학생 수는 33,382명에 이르렀다.<sup>38)</sup>

37) 윤춘병, 『한국감리교회 주일학교사화』, 55.

38) 위의 책, 100.

이러한 상황에서 세 종류의 아동중심교육학 교재가 발간되었다.

첫째는 멩커스(A. Munkres)의 *Primary Method in the Church School*를 1922년 남궁혁이 번역하여 『최신 유년주일학교 교수법』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다. 이 책의 원저자 멩커스(Alberta Munkres)는 당시 미국 보스턴대학교(Boston University)의 종교 교육과 교수였다. 1921년에 출판된 책을 다음 해인 1922년에 곧바로 번역해서 출간할 만큼 미국의 기독교 교육의 최신 방법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려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번역한 남궁혁은 1901년 배재학당을 졸업하고 병커(D.A. Bunker) 선교사의 소개로 인천세관 및 목포세관에서 근무하였으며, 1906년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후 전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리고 광주금정교회 목사로 재직하다 프린스턴신학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유학하였으며, 리치몬드 유니언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1년만 마치고 귀국하였다. 귀국 후 평양신학교 교수가 되었으며, 1928년부터 『신학지남』 편집장을 맡았다. 193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이 되었으며, 평양신학교가 폐교된 후 중국 상해로 망명하였다가 광복 직후 귀국하여 미군정청 적산관리처장을 지냈다. 1948년 한국기독교연합회 총무로 재직하였으며, 1950년 8월 북한군에 의해 납북되었다. 그는 특히 주일학교 운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주일학교 진흥부 전남노회 위원장과 주일학교연합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조선주일학교대회 대회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1924년에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Glasgow)에서 개최된 세계주일학교 총회에 참석한 바가 있다.<sup>39)</sup> 이 교재의 목차는 다음 <표 2>와 같이 구성되었다.

39) 남궁혁의 생애에 대해서는 문백란, 「남궁혁의 신학사상 연구」(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최원주, 「남궁혁의 생애와 사상: 교회일치와 연합사상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참조.

〈표 2〉 『최신 유년주일학교 교수법』 목차

장	제목	내용
제1장	아동	유년기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
제2장	공과의 종류	단급식 공과, 부별계단적공과, 연별 계단적공과
제3장	훈련방식	해석법, 문답법, 이야기방식, 이야기하는 방법
제4장	이야기 만드는 법	인도하는 말, 본론, 결론
제5장	이야기 준비	성경이야기 준비하는 법, 성경이야기의 개요
제6장	이야기를 완전히 만들 것	이야기를 힘있게 만드는 법, 이야기 하는 법
제7장	유년부의 쓸 이야기	재료 얻을 곳, 이야기 택함, 이야기를 할 시간
제8장	예화의 재료	그림을 택하는 방법, 그림을 공부하는 법, 그림을 쓰는 법, 그림을 보관하는 법, 그림 얻을 곳, 모형을 사용할 것
제9장	이야기의 진행	진행의 목적, 재료의 견본, 진행법, 예제
제10장	행위적 표시	행위에 나타나도록 힘쓸 것
제11장	연극적 표시	연극의 가치, 연극할 방침, 설비, 연극할만한 이야기
제12장	수공	주일학교에서 하는 수공, 그림, 종이 접는 것,
제13장	수공 연속	종이를 잘라서 만드는 것, 진흙을 가지고 모형을 만들 것, 의장(意匠), 채색
제14장	종이로 무엇을 만드는 법	에스키모 썰매, 상자, 유대인의 집, 병거, 인력거, 일본집, 장막, 예배당, 성경 두루마리, 배
제15장	유년부에서 쓰는 모래	설비, 보관하는 법, 사용시간, 모래로 만드는 법, 모래를 사용하여 가르칠만한 이야기
제16장	교안	교안을 만들어볼 것, 교안의 형식, 교안 만드는 법, 예제
제17장	유년부의 음악	노래를 선택하는 법, 노래 가르치는 법
제18장	예배 순서	예배시 주의할 것, 예배시간, 예배순서에 들어간 자료, 예배순서를 만드는 법, 특별예배순서
제19장	설비	설비
제20장	조직과 관리	직원과 직무, 임금
제21장	선생과 양성	선생, 유년부 선생의 자격, 양성하는 방법, 연구과목, 선생이 지킬 신경(信經)

위 책은 아동의 특징과 서구 기독교윤리를 아동에게 어떻게 교육학적으로 훈련시킬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다. 위 목차에서 드러나듯이 성경 이야기와 성경에서 제시하는 기독교윤리를 아동들의 실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법을 제시하였다. 여러 가지의 교수법과 함께 성경 이야기들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교재는 한석원의 『최근 주일학교론』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당시 보스턴대학교(Boston University) 종교교육학 교수로서 미국에서 저명한 교육학자인 아던(W.A. Atearn)이 출간한 *The Church School*를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원저자가 드레이크 대학교(Drake University) 종교 교육학 교수로 재직할 때, 미국 종교교육협회(The Religion Education Association)의 클리블랜드(Cleveland) 회의에서 발표한 “The Correlation of the Educational Agencies of a Local Church”에 대한 위원회 보고의 결과물로서 1914년에 출판되었다.<sup>40)</sup>

이 책을 번역한 한석원은 1894년 평북 선천에서 출생하였다. 평남 진남포의 삼승학교, 서울 상동교회 청년학원, 배재대학 등에서 수학한 후 일본 신호(神戶) 관서학원(關西學院) 신학부에서 종교 교육을 전공하였다. 1917년 3월 졸업 후 귀국하여 서울 중앙 YMCA 소년부 간사로 취임하였다. 그 이후 한석원은 한국교회의 기독교 교육사업에 힘썼다. 그는 『기독교신보』에 「주일학교 교사의 이상」 등을 비롯한 여러 편의 글을 게재하였고, 월간지 『주일학교연구』의 사장 겸 주간으로 활동하였다. 단행본으로는 『주일학교 조직과 설비』(활문사, 1921)를 남겼다. 가곡집으로는 『가곡집』(조선주일학교연합회, 1925)를 비롯해서 여러 책을 출간하였다. 그는 상동교회 청년학원과 배재대학 재학 시절부터 한국 교계 신문에 동화와 성극 각본을 쓰고 어린이 주일, 추수감사절 등에 유년부 특별예배순서를

40) W. S. Atearn, *The Church School* (Boston: The Pilgrim Press, 1914).

포함시켰다.<sup>41)</sup> 『최근 주일학교론』 목차는 다음 <표 3>과 같이 구성되었다.

<표 3> 『최근 주일학교론』 목차

장	제목	내용
제1장	교회학교의 총론	교회학교의 직분, 교회학교의 사업, 교회학교의 프로그램
제2장	교회학교의 조직	교회의 교육부, 분과적 조직
제3장	요람과 「영아과」	요람과의 범위와 조직, 요람과의 아동, 가정에 대한 교육의 의무, 요람과의 수업, 요람과의 집회, 요람과의 아동과 교회학교의 관계, 요람과와 교회의 보육소, 요람과의 설비
제4장	유치과	유치과의 범위와 생도의 성질, 유치과의 학과, 유치과의 표현적 과업, 유치과의 조직, 유치과의 설비, 유치과의 프로그램, 유치과 교육실적의 음미
제5장	초등과	초등과의 범위와 아동의 마음, 유희의 특질, 초등과의 도덕적 의의, 학과의 재료, 초등과의 표현적 동작, 초등과의 프로그램, 초등과 교육 효과시험
제6장	소년소녀과	그 범위와 생도의 특질, 회의의 제1기, 회심, 학과의 재료, 교회출석의 습관, 소년소녀의 음악, 소년소녀의 표현적 활동, 소년소녀과의 프로그램, 소년소녀과의 설비, 소년소녀과 수업성적 음미
제7장	중등과	중등과의 범위와 생도의 성질, 회심의 연령, 중등과의 학과, 예술과 청년교육, 중등과 표현적 활동, 중등과의 조직, 중등과의 설비, 중등과의 프로그램
제8장	고등과	고등과의 범위와 생도의 성향, 고등과의 학과, 고등과의 표현적 활동, 고등과의 조직, 고등과의 프로그램, 고등과의 설비
제9장	장년과	장년의 종교적 요구, 학급의 종류, 특별과
제10장	가정과	가정과와 직분, 가정과의 교사, 가정과의 지도방법, 아동의 가정과 및 요람과
제11장	사범과	교사 양성과, 교사의 서재, 물품, 사범과 고등부

41) 윤춘병, 『한국감리교회 주일학교사화』, 57, 64-67, 77-78.

이 교재에서 중점을 둔 것은 아동의 연령대 구별이었다. 좀 더 교육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요람과, 유치과, 초등과, 소년소녀과, 중등과, 고등과 등으로 구분하고, 아울러 장년과도 함께 서술하였다. 이외에 가정과와 사범과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홍병선의 『근세 주일학교 교수법』이다. 이 책의 저자 홍병선은 1894년 2월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경성학당을 졸업한 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동지사대(同志社大学)를 졸업하였다. 1911년 귀국한 후에는 한양기독교회 전도사를 지냈으며, 보성전문학교 교수, 배화여학교 교사, 피어선성경학원 교수 등을 지냈다. 그는 YMCA 간사로 활동하면서 교수법, 심리학, 아동설교집 등 많은 교육서적을 출간하였다. 예를 들어 『아동심리학』(박문서관, 1920), 『심리학』(박문서관, 1923), 『종교심리학』(예수교서회, 1925)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 『기독교신보』에 「교사의 자격」을 비롯한 많은 글을 실었으며, 초교과 교육잡지 『주일학계』의 편집장이었다.<sup>42)</sup> 그가 출간한 책의 목차는 <표 4>와 같았다.

<표 4> 『근세 주일학교 교수법』 목차

장	제목	내용
제1장	주일학교가 무엇이뇨	주일학교의 목적, 주일학교와 교회, 주일학교와 가정, 인물과 처소, 주일학교의 필요와 이익
제2장	주일학교의 역사와 현황	옛날 주일학교, 근세의 주일학교, 주일학교의 현황
제3장	주일학교의 생도	생도를 알 일, 아동의 마음을 아는 방법, 기질, 아동 각기의 심리상 특질, 아동의 공통되는 성질, 생도의 위생
제4장	주일학교의 반편제	반편제법, 반에 대한 방침, 한 교사가 여러반을 가르침, 장년반 편제법,

42) 위의 책, 57, 64-67, 78.

장	제목	내용
제5장	주일학교의 교재	교재의 선택, 교재 편찬 문제, 교재 선택에 대한 주의
제6장	주일학교의 조직과 설비	반급의 조직, 직원의 조직, 목사도 직원중 1인, 주일학교의 설비, 촌교회 주일학교 설비
제7장	주일학교 교사	교사의 책임, 교사의 자격, 교사의 의무, 교사 구하기의 어려움, 교사양성 사법과의 과정과 방법, 주일학교 장년반 교사, 교사 채용에 대한 주의,
제8장	주일학교 교수법	교수의 목적, 교수의 원리, 교수의 두 방면, 교수의 방법, 5단 교수법의 실례, 3단 교수법, 교수에 대한 조건, 교사의 교수적 책임, 교수에 대한 주의
제9장	주일학교관리법	관리의 목적, 간단한 규칙의 필요, 관리의 요소, 집회 시간, 임원교사 친목회, 재정, 관리에 대한 주의
제10장	주일학교 학생의 훈련	훈련의 뜻과 필요, 훈련의 수단
결론	주일학교는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장래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이 책에서는 주일학교의 정의, 주일학교 역사와 현황, 아동의 특징, 주일학교의 학급 편성, 주일학교의 조직과 설비, 교사, 교수법, 관리법, 교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다.

1922년에 출간된 아동중심교육학 교재는 1924년 조선주일학교연합회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주일학교연합회는 주일학교 “교사양성공과”를 출판함과 동시에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교사 양성 과정을 이수하면 조선주일학교 교사 자격증과 만국주일학교 교사 자격증을 주었다. 즉 조선주일학교 교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 12시간, 심리학 12시간, 교수법 12시간, 조직법 12시간, 특별과 12시간, 인도법 12시간을 이수해야 했다. 그리고 만국주일학교 교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서 또 72시간을 더 이수하면 되었다.<sup>43)</sup>

#### IV. 주일학교 아동중심교육학 교재로 본 서구 기독교윤리의 교육방식

내한선교사들은 주일학교 제도를 한국에 보편화시키기 위해 주일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교재를 편역 및 발간하였고, 한국인들은 내한선교사들과 함께 1922년 조선주일학교연합회를 조직하면서 주일학교 제도를 더욱 체계화시키기 위해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아동중심교육학 교재를 번역 혹은 저술하였다. 1922년 당시 주일학교는 아동반과 장년반이 분리되지 않아 효율적으로 서구의 기독교윤리를 교육시키기 어려웠다. 홍병선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오늘날 조선에 주일학교는 대개 오전에 모여 장년과 유년을 함께 가르치고 오후 두시나 세시에 또 유년만 따로 모아서 유년주일학교를 여는 것이 통례이다. 이로 보면 아해들은 주일날이면 두 번씩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고로 아해들이 놀음도 없고 모이기도 매우 힘들 줄 아노니 주일날 한번만 성경을 가르침이 적당하니 오전에 성경을 가르치면 오후에는 아해들을 따로 예배만 보게 하고 오후에 주일학교로 모아 성경을 가르칠지니라<sup>44)</sup>

위의 인용문처럼 1922년 조선주일학교연합회가 조직될 당시만 해도 오전에 어린이와 장년들이 함께 모여 성경공부를 하였던 것이다. 어린이는 장년과 분명 차이가 나는데 같은 반에서 함께 교육을 시키는 것은 교육학적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재에서 이러한 나이별 차이를 인정하고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관점에서 번역 및 저술이 이루어졌다.

43) 안병창, “한국교회의 청소년부 교육과정 변천사: 5개 교단을 중심으로,” 85-86.

44) 홍병선, 『근세주일학교교수법』, 76.

전술한 네 종류의 책들에서는 주일학교의 필요성, 주일학교 아동들의 연령별 학급 편제, 다양한 교수법 등을 제시하였다.

먼저, 주일학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홍병선의 책에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되었다. 1909년 출간된 『교사랑성 주일학당교구서』에는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다. 이 책은 모두 5개 언어로 번역 출간될 만큼 전 세계로 주일학교를 확산시켜 기독교윤리를 교육하기 위해 출간된 것이므로 주일학교 제도의 필요성보다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신구약개론, 성지지리, 주일학교의 조직과 관리, 교회사기, 아동심리학, 주일학당순서 등을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다.

1922년 홍병선의 책에서는 주일학교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는 먼저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르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유용한 인물을 양성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교육을 육체적 교육, 지식적 교육, 도덕적 교육, 종교적 교육 등으로 구분하였다. 어린이가 도덕적, 종교적 교육을 받지 못하면 “병신”이 된다면서 인생의 근본은 종교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즉 다음과 같이 종교가 있어야 도덕도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다.

누구든지 그 자녀를 가르칠 때 한편으로는 학교에 입학하게 하여 지식을 잘 가르치고 또 한 편으로는 종교를 가르쳐 완전한 도덕을 심어주며 종교적 생활에 들어가게 하여 아해로 하여금 교육을 완전히 받게 할지니라<sup>45)</sup>

주일학교라는 것은 “예수교 도덕”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완전히 깨끗한 품성을 만들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덕과 종교를 가르치는 곳이 주일학교의 목적이라고 밝혔다.<sup>46)</sup>

45) 위의 책, 2.

46) 위의 책, 3.

다음으로 아동의 연령별 발달에 따른 학급 편제에 대해서는 1909년 교재에서부터 설명되었다. 『교사양성 주일학당교과서』에서는 미국 공립학교의 학급 편성에 따라 주일학교의 학급 편성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초등유치반은 3세부터 6세까지이며, 유년반은 6세부터 9세까지, 소년반은 9세부터 12세까지, 중등반은 12세부터 16세까지, 고등반은 16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sup>47)</sup>

1922년 한석원의 번역서인 『최근주일학교론』에서는 어린이의 나이별 교육 단계를 요람과는 만 4세까지, 유치과는 4세-5세, 초등과 6세-8세, 소년소녀과 9세-12세, 중등과 13세-16세, 고등과 17세-20세, 장년과 20세 이상, 가정과는 주일학교에 출석할 수 없는 사람 등으로 구분하였다.<sup>48)</sup> 홍병선의 『근세주일학교교수법』에는 영아명부와 0세-3세, 유치과는 4세-5세, 초등과는 6세-8세, 소년과는 9세-12세, 중학과는 13세-15세, 청년반은 16세-20세, 장년반은 21세 이상, 가정부 등으로 나누었다. 이를 <표 5>로 표시할 수 있다.

<표 5> 주일학교 교사양성 교재들의 학급 분반

『교사양성 주일학당교과서』 (1909, 크랩 편역)		『최근주일학교론』 (1922, 한석원 번역)		『근세주일학교교수법』 (1922, 홍병선 저)	
초등유치반	3세-6세	요람과	만 4세까지	영아명부와	0세-3세
유년반	6세-9세	유치과	4세-5세	유치과	4세-5세
소년반	9세-12세	초등과	6세-8세	초등과	6세-8세
중등반	12세-16세	소년소녀과	9세-12세	소년과	9세-12세
고등반	16세 이상	중등과	13세-16세	중학과	13세-15세
		고등과	17세-20세	청년반	16세-20세

47) 하밀 저·크랩 역, 『교사양성주일학당교과서』, 120.

48) 한석원, 『최근주일학교론』, 14.

『교사랑성 주일학당교과서』 (1909, 크랩 편역)		『최근주일학교론』 (1922, 한석원 번역)		『근세주일학교교수법』 (1922, 홍병선 저)	
		장년과	20세 이상	장년반	21세 이상
		가정과	주일학교에 출석할 수 없는 사람	가정부	주일학교에 출석 할 수 없는 사람

학급 분류는 1909년 크랩의 편역서에서 소개된 이후 1922년 한석원의 편역서에서 다시 소개되었다. 이 책에서는 이전보다 더 정밀하게 분류되었다. 홍병선은 이와 같은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한국의 주일학교 상황에 맞게 재분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분류는 조선 주일학교 학제가 정착화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1934년 감리회 제2회 총회에서는 기존의 여러 가지 주일학교 학제를 참고로 해서 조선의 국민학교 학제에 따라 주일학교 학제를 규정하였다.<sup>49)</sup>

교수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았다. 1909년 『교사랑성 주일학당교과서』에서는 교수법으로 성경문답, 기억연습, 복습, 필기 복습 시험 등을 제시하였다.<sup>50)</sup>

1922년도에 출간된 전술한 세 종류의 책 중에서 어린이를 위한 교수법을 가장 자세하게 기술한 책은 남궁혁이 번역한 『최신유년주일학교교수법』이었다. 이 책에서는 훈련방식으로는 해석법, 문답식, 이야기방식, 예화의 재료, 행위적 표시, 연극적 표시, 수공, 종이 사용, 모래, 교안 작성 등에 대한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훈련방식에서 해석법이라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공과를 가르칠 때에 먼

49) 윤춘병, 『한국감리교회 주일학교 사화』, 119.

50) 하밀 저·크랩 역, 『교사랑성주일학당교과서』, 190.

저 적당한 설명을 하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이나 주기도문 등에 대해 암기를 시킬 때 먼저 설명을 해야 어린이들이 이해를 한다는 의미였다. 문답식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묻고 대답하는 것인데, 교사가 문제를 학생에게 제시하면 학생이 대답 혹은 토론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설명한 것이 반드시 어린이들이 실생활에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실천행위는 기독교윤리인 부모와 선생에게 순종하기 및 이웃을 사랑하기 등에 대한 것이었다. 그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였다.

- 부모와 선생에게 대하여 지체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게 할 것
- 집에서 부모를 잘 도와드리게 할 것
- 학교에서 교재를 나누어주어 거두어드림으로써 선생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할 것
- 일할 때나 유희할 때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정신이 생기게 할 것
- 부모를 존경하게 할 것
-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되 특별히 노인을 대접하게 할 것
- 하나님의 만드신 물건에 대하여 친절함을 나타내게 할 것
- 일할 때에 부지런히 하고 장난할 때에 정직하게 할 것
- 범사에 정직하고 욕심이 없으며 지체하는 것이 없게 하며
- 감사절에 실과와 채소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
- 구주성탄에 돈과 음식과 의복 같은 것을 선사하게 할 것
- 병원이나 고아원이나 각 선교회에 공책, 그림, 신문 등을 보내줄 것
- 부활주일에 꽃과 화분을 병든 사람에게 보낼 것
- 병든 어린이나 다른 이유로 주일학교에 오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공과지를 보낼 것<sup>51)</sup>

마지막으로는 어린이들에게 성경 내용을 보다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 서는 연극, 그림그리기, 종이접기, 종이오리기, 진흙으로 모형 만들기, 모델상자 이용하기 등을 제안하였다.

홍병선은 『근세주일학교교수법』에서 수공재료로 유대 지도 그리기, 성경 필사, 성경에 나오는 새와 나무 그리기 등을 위해 지필묵, 오색물감, 널빤지, 환등 등의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sup>52)</sup> 그리고 상벌 제도의 사용을 적극 권하였다. 홍병선은 좋은 행위는 상을 주어 더욱 권하여야 하며, 나쁜 행위에 대해서는 벌을 주어 책망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상주는데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정할 것을 권하였다.

예를 들어 주일날 친구를 일으켜 준 것, 친구가 담배주는 것을 거절한 것, 길잃어 버린 어린이를 그 어린이 집까지 찾아서 데려다준 일, 불쌍한 병신 거지를 밥준 일 등이 상을 줄 일이며 이외에 시험성적, 출석 등을 잘 점검해서 세달, 여섯달, 아홉달, 열두달 등으로 구분해서 점점 큰 상을 주라는 것이었다. 상은 딱지, 성경, 찬미, 공책, 연필, 표창장, 휘장, 우승기 등을 주는 것이 좋다고 권하였다. 벌에 대해서는 때린다든지 많은 학생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에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쁜 행위를 했으면 어린이를 교장 혹은 교사가 따로 조용히 불러서 타이르고 함께 기도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어린이들이 고아원, 평양맹아학교 등에 돈을 모아서 보낸다든지해서 자선심과 남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sup>53)</sup>

1930년대 이후 한국인들에 의한 아동중심교육학 교재가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이 교재들은 1909년에 한국에 소개된 하밀의 책과 1922년 출간된 세 종류의 교재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

51) 명커스 저·남궁혁 역, 『최신유년주일학교교수법』, 101-102.

52) 홍병선, 『근세주일학교교수법』, 36.

53) 위의 책, 82-85.

로 김준옥이 1930년 출간한 『주일학교교수원칙』과 배덕영이 1935년에 출간한 『주일학교 조직과 관리』 등을 들 수 있다.<sup>54)</sup>

## V. 나가는 말

본고는 근대전환기 서구의 기독교윤리 교육을 위한 주일학교의 아동중심교육학의 도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서구 기독교윤리교육을 위한 주일학교의 도입과 제도적 발전, 그 다음으로는 서구 기독교윤리 교육을 위한 주일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아동중심교육학 교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주일학교 아동중심교육학 교재로 본 서구 기독교윤리의 아동교육방식에 대해서 검토 및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세기말 이후 서구 제국주의의 한반도 유입과 함께 서구 기독교도 함께 들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교적 질서는 붕괴되기 시작하였고, 그 자리를 서구의 근대사상이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한선교사들은 서구의 기독교윤리를 주장하였다. 내한선교사들은 한국인들에게 서구의 기독교윤리를 개인과 사회의 규범으로 내면화 및 확산시키기 위하여 근대 교육사업을 전개하였다. 교육사업은 일반교육과 종교교육으로 구분해서 시행되었다. 종교교육은 사경회와 주일학교 운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한국인들은 주일학교 교사 양성을 통해서 서구의 근대교육학, 학생들은 서구의 근대교육방식을 접할 수 있었다.

근대전환기 한국에서 주일학교 제도는 초기 사랑방에서 운영하던 성경반에서 시작되었다. 유년주일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주일학교를 처음 운영한 선교사는 노블 부인이었다.

54) 김준옥, 『주일학교교수원칙』(서울: 연회주일학교부, 1930), 배덕영, 『주일학교 조직과 관리』(서울: 기독교 조선감리회 총리원교육국, 1935).

1905년 ‘재한복음주의 통합선교공의회’ 산하에 주일학교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주일학교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1907년에는 독노회가 조직되자 그 산하에 ‘주일학당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08년에는 미국 세계주일학교연합회 하밀의 내한을 계기로 여러 교파의 선교사들은 세계주일학교연합회 한국지부를 결성하였다. 1911년 4월 세계주일학교연합회의 특별위원인 브라운의 내한으로 ‘주일학교실행위원회’, 1922년 11월 한국인들에 의해 ‘조선주일학교연합회’가 조직되었다. 연합회의 총대는 총 10개 단체의 대표 27명이었다.

장로교 총회에서는 1926년 주일학교부를 종교교육부로 이름을 바꾸고 기독교교육의 여러 분야를 개발함과 동시에 주일학교 공과를 발행하였으며, 성경통신교육을 시작하였다. 장로교에서는 이와 같이 주일학교운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연합회는 장로교 중심으로 발전을 했다. 그러자 감리교에서는 1928년 제7회 총회에 “감리교 종교교육협회”를 조직하여 주일학교운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주일학교가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 발전하게 되자 교사 양성을 위한 아동중심교육학 교재를 필요로 하였다.

주일학교 운영에 관한 조직과 관리, 교육에 필요한 아동심리학 및 교수법 등의 아동중심교육학 교재로서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가장 처음 출간된 시기는 1909년이였다. 하밀이 미국에서 출판한 *Legion of Honor, Teacher Training Lessons*를 남감리교선교사 크램(W.G.Cram)이 편역해서 출간한 『교사양성 주일학당교과서』였다. 이 교재에서는 성경의 신구약개론, 성지지리, 주일학교의 조직과 관리를 비롯해서 아동중심교육학과 관련된 아동심리학과 교수법 등을 다루었다. 이외에 아동부 예배 순서 진행, 사무처리방법, 주일학당 순서 등도 함께 설명하였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1922년 한국인들에 의해 조선주일학교연합회

가 조직되면서 아동중심교육학 교재가 여러 종류 출간되었다. 당시 조선 주일학교연합회는 주일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시급성을 자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 종류의 아동중심교육학 교재가 발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멩커스(A. Munkres)의 *Primary Method in the Church School*를 1922년 남궁혁이 번역 출간한 『최신 유년주일학교 교수법』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아동의 특징과 서구 기독교윤리를 아동에게 어떻게 교육학적으로 훈련시킬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교재는 한석원의 『최근 주일학교론』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당시 보스톤대학교(Boston University) 종교교육학 교수로서 미국에서 저명한 교육학자인 아던(W.A. Athearn)이 출간한 *The Church School*를 번역한 것이다. 이 교재에서 중점을 둔 것은 아동의 연령대 구별이었다. 좀 더 교육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요람과, 유치과, 초등과, 소년소녀과, 중등과, 고등과 등으로 구분하고, 아울러 장년과도 함께 서술하였다. 이외에 가정과와 사범과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홍병선의 『근세 주일학교 교수법』이다. 이 책에서는 주일학교의 정의, 주일학교 역사와 현황, 아동의 특징, 주일학교의 학급 편성, 주일학교의 조직과 설비, 교사, 교수법, 관리법, 교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다.

1922년에 출간된 아동중심교육학 교재는 1924년 조선주일학교연합회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한선교사들은 주일학교 제도를 한국에 보편화시키기 위해 주일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교재를 편역 및 발간하였고, 한국인들은 내한선교사들과 함께 1922년 조선주일학교연합회를 조직하면서 주일학교 제도를 더욱 체계화시키기 위해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아동중심교육학 교재를 번역

혹은 저술하였다. 전술한 네 종류의 책들에서는 주일학교의 필요성, 주일 학교 아동들의 연령별 학급 편제, 다양한 교수법 등을 제시하였다.

먼저, 주일학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홍병선의 책에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는 먼저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르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유용한 인물을 양성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교육을 육체적 교육, 지식적 교육, 도덕적 교육, 종교적 교육 등으로 구분하였다. 어린이가 도덕적, 종교적 교육을 받지 못하면 “병신”이 된다면서 인생의 근본은 종교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주일학교라는 것은 “예수교 도덕”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완전히 깨끗한 품성을 만들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덕과 종교를 가르치는 곳이 주일학교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아동의 연령별 발달에 따른 학급 편제에 대해서는 1909년 교재에서부터 설명되었다. 이러한 분류는 조선 주일학교 학제가 정착되는데 영향을 주었다. 1934년 감리회 제2회 총회에서는 기존의 여러 가지 주일학교 학제를 토대로 조선의 국민학교 학제에 맞추어서 주일학교 학제를 규정하였다. 교수법에 대해서 1909년 『교사량성 주일학당교과서』에서는 성경문답, 기억연습, 복습, 필기 복습 시험 등을 들었다. 1922년도에 출간된 전술한 세 종류의 책 중에서 어린이를 위한 교수법을 가장 자세하게 기술한 책은 남궁혁이 번역한 『최신유년주일학교교수법』이었다. 이 책에서는 훈련방식으로 해석법, 문답식, 이야기방식, 예화의 재료, 행위적 표시, 연극적 표시, 수공, 종이 사용, 모래, 교안 작성 등에 대한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어린이들에게 성경 내용을 보다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연극, 그림그리기, 종이접기, 종이오리기, 진흙으로 모형 만들기, 모래상자 이용하기 등을 제안하였다.

홍병선은 『근세주일학교교수법』에서 수공재료로 유대 지도 그리기, 성

경 필사, 성경에 나오는 새와 나무 그리기 등을 위해 지필묵, 오색물감, 널빤지, 환등 등의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상벌제도의 사용을 적극 권하였다. 홍병선은 좋은 행위는 상을 주어 더욱 권하여야 하며, 나쁜 행위에 대해서는 벌을 주어 책망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주는 데는 반드시 규칙을 정할 것을 권하였다.

1930년대 이후 한국인들에 의해 출판된 아동중심교육학 교재들은 1909년 한국에 소개된 하밀의 책과 1922년 출간된 세 종류의 교재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 참고문헌

- 구장률. 『근대초기 잡지와 분과학문의 형성』. 서울: 케포이북스, 2012.
- 김권정. “한국기독교초기 유교지식인의 기독교사회윤리연구: 월남 이상재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20(2010), 103-129.
- 김권정. “근대전환기 윤치호의 기독교사회윤리사상.” 『기독교사회윤리』 22(2011), 75-101.
- 김명배. “1920년대 민족주의운동과 기독교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기독교 사회윤리의 관점에서.” 『기독교사회윤리』 32(2019), 95-121.
- 김성학. “서구 교육학 도입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김양선. 『한국기독교사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71.
- 김준옥. 『주일학교교수원칙』. 서울: 연회주일학교부, 1930.
- 김폴린. 『한국기독교 교육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연동주일학교100년사: 1907-2007』. 서울: 연동교회 역사위원회, 2008.
- 문동환. “한국의 교회교육사:주일학교 운동 중심으로.” 39,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연동주일학교100년사:1907-2007』, 서울: 연동교회 역사위원회, 2008.
- \_\_\_\_\_. “한국의 교회교육사:주일학교 운동 중심으로.” 대한기독교교육협회, 『한국기독교교육사』,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73.
- 문백란. “남궁혁의 신학사상 연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문시영 외. 『근대 사상의 수용과 변용I』. 서울: 선인, 2020.
- 박정신. 『한국기독교 읽기』. 서울: 다락방, 2004.
- 배덕영. 『주일학교 조직과 관리』. 서울: 기독교 조선감리회 총리원교육국, 1935.
- 백낙준. 『백낙준 전집 I: 한국개신교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 백종구. “초기 개신교 선교부의 사회윤리.” 『교회사학』 1-1(2001), 117-147.
- 소홍희. “초기 한국주일학교(1888-1945년) 공과교재에 따른 교사교육방법 연구.” 충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안병준. “조선주일학교연합회연구:1922년-1937년간의 주일학교운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안병창. “한국교회의 청소년부 교육과정 변천사: 5개 교단을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엄요섭. 『한국기독교역사소고』. 서울: 재단법인 대한기독교교회, 1959.
- 오지석. 『서양 기독교윤리의 주체적 수용과 변용: 갈등과 비판을 넘어서』. 서울: 푸른영토, 2018.
- 윤춘병. 『한국감리교회 주일학교 사화』.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 교육국, 1992.
- 이운진. “1910년대 개신교 주일학교의 교육활동.” 『한국교육사학』 30-2(2008), 101-118.
- 이지혜. “전(全) 조선주일학교대회에 관한 연구.” 서울장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장금현. “재한복음주의선교통합공의회.” 『성결교회와 신학』 6(2001), 161-190.
- 정창원. “한국미션건축에 있어서 개신교 개척선교사의 활동과 영향에 관한 연구: 그레함 리(Graham Lee)의 건축활동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13-2(2004), 57-70.
- 조선훈. “노블부인의 선교생활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최원주. “남궁혁의 생애와 사상: 교회일치와 연합사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홍병선. 『근세주일학교교수법』. 서울: 조선야소교서회, 1922.
- Athearn, W. A. *The Church School*. 한석원 역, 『최근주일학교론』, 서울: 조선야소교서회, 1922.
- Hamill, H. M. *Legion of Honor, Teacher Training Lessons*. 크램(Cram, W. G) 역, 『교사량성 주일학당교과서』, 발행처 불명, 1909.
- Jürgen Schlaeger, ed. *Metamorphosis Structures of Cultural Transformations*.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2004.
- Munkres, A. *Primary Method in the Church School*. 남궁혁 역, 『최신유년주일학교교수법』, 서울: 조선야소교서회, 1922.
- Rhodes, H. A.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최재건 옮김, 『미국 북장로교 한국선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자료총서 제17집: The Journals of Mattie Wilcox Noble, 1892-1934』,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3.

‘레비·이일공과,’ 『조선그리스도회보』 1897년 2월 10일자.

Documenting the American South(<https://docsouth.unc.edu/fpn/hamill/summary.html>).

논문투고일: 2020년 06월 30일

심사개시일: 2020년 07월 20일

게재확정일: 2020년 08월 04일

---

• 국 문 초 록 •

---

본고의 목적은 근대전환기 서구의 기독교윤리 교육을 위한 기독교 주일학교의 아동중심교육학의 도입에 대해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근대전환기 주일학교와 관련해서는 여러 편의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들은 대부분 주일학교의 초기 역사, 주일학교의 교재, 조선주일학교연합회와 주일학교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 주일학교 교사 양성 등에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에 의해 주일학교와 관련된 많은 역사적 사실을 밝혀냈지만 주일학교가 제도화함에 따라 필요한 교사 양성을 위한 아동중심교육학 교재에 대해서는 분석이 없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주일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교재가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 도입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먼저 주일학교의 도입과 제도화에 대해서, 이어 1909년에 주일학교 교사 양성을 위해 한국 최초로 출간된 크램(W.G.Cram)의 번역서 『교사양성 주일학당교과서』, 1922년에 발간된 남궁혁의 번역서 『최신 유년주일학교교수법』, 한석원의 번역서 『최근 주일학교론』, 홍병선의 저서 『근세 주일학교교수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책들에서 강조한 아동중심교육학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혔다.

**주제어:** 메타모포시스, 기독교윤리, 주일학교, 조선주일학교연합회, 크램, 남궁혁, 홍병선, 한석원

---